KOSDAQ SMALL-CAP RESEARCH

윙스풋 335870 · 신발·헬스케어

악재 우위

러닝화·아웃도어 신발을 만들던 회사가 실적 부진에 몰려 의료 AI·헬스케어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코스닥 소형주.

2026년 11월 27일 종가 기준 · 선정 사유: 코스닥 거래대금 5위(81.1억), 미보도 후보 944개 중 선정. 10월 관리종목 지정(시가총액 200억 미달), 10월 전환사채 발행·만기전취득, 11월 3일 연속 상한가 등 이벤트가 집중 발생.

시가총액	주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PER	PBR	부채비율	당좌비율
169억	5,040원	-5.97%	81억	적자	0.72배	78.47%	71.76%

쉬운 요약

실적이 무너진 신발 회사가 생존을 위해 의료·헬스케어로 사업을 바꾸는 중입니다. 매출은 516억(2023)에서 420억(2025)으로 줄었고, 2025년에 영업손실 28억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1~3분기 내내 영업적자(-44억·-19억·-21억)가 이어졌고, 10월에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상장폐지 위기라는 표현이 기사에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11월 들어 3일 연속 상한가가 나오며 시총 200억을 다시 넘겼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8배로 터졌는데, 이는 회사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관리종목 탈출 기대와 테마 수급**에 가깝습니다. PBR 0.72배로 자산 대비 싸지만, 그 자본이 계속 적자로 깎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 전제입니다.

투자 포인트

1. 11월 들어 3일 연속 상한가로 시가총액 200억원을 돌파하며 10월 지정된 관리종목(시총 미달) 사유를 일단 넘겼고, 1개월 주가는 +65.2% 급등했다.
2. PBR 0.72배(BPS 7,000원 대비 주가 5,040원)로 자산 대비 저평가 구간이며, 부채비율 78.47%로 절대 수준은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다.
3. 러닝화·헬스케어 투트랙 전환과 W.AI·KAID 등 의료 AI·구강조직 관련 MOU·공급계약으로 신사업 기대가 형성돼 있다.

핵심 리스크

1. 2026년 1~3분기 영업손실이 분기마다 -44억·-19억·-21억으로 이어졌고, 2025년 연간 영업이익도 -28억으로 적자가 고착화됐다.
2. 시가총액 169억으로 관리종목(시총 200억 미달) 꼬리표가 붙어 있고, 상한가로 잠깐 넘겨도 주가가 식으면 상장폐지 심사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다.
3. 당일 거래량이 20일 평균의 8.3배, 최근 20일 중 ±5% 이상 변동일이 15일로 전형적 테마·투기 수급이며 1년 주가는 -41.6%다.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자료 · © 오픈팩트 · 1 / 10

주가·거래량 분석 최근 1년

주가(원)와 거래량 — 최근 1년 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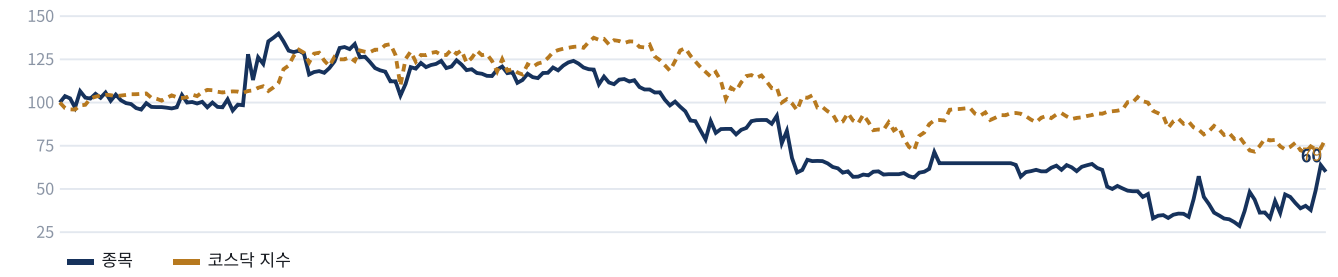


기간	당시 주가	주가 등락	코스닥 지수	지수 대비
1주 전	3,260원	+54.6%	+9.8%	+44.8%
1개월 전	3,050원	+65.2%	-8.1%	+73.3%
3개월 전	5,370원	-6.1%	-	-
1년 전	8,635원	-41.6%	-19.4%	-22.2%

구간	거래량	거래대금	1년 평균 대비
당일	1,380,130주	81.1억	39.4x
5일 평균	337,748주	16.2억	9.6x
20일 평균	167,104주	6.9억	4.8x
60일 평균	75,379주	3.1억	2.1x
1년 평균	35,071주	2.3억	1.0x

코스닥 지수 대비 =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은 종가×거래량 근사. 출처: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27 기준.

종목 vs 코스닥 지수 (1년 전 = 100)



애널리스트 해석 — 이 가격·거래량이 말하는 것

① **1년과 1개월이 정반대입니다.** 1년 전 8,635원에서 지금 5,040원으로 -41.6%지만, 1개월 수익률은 +65.2%, 1주 수익률은 +54.6%입니다. 11월 5일 52주 최저 2,390원을 찍은 뒤 불과 3주 만에 110.9% 반등한 것입니다. 52주

최고 12,250원(1월) 대비로는 여전히 -58.9%. 이 종목의 1년은 '고점 붕괴 → 바닥 → 관리종목 탈출 급반등'의 세 구간입니다.

② **거래량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크기입니다.** 당일 거래량 138만 주는 20일 평균의 8.3배, 250일 평균 대비로는 5일 평균이 9.6배입니다. 거래대금도 당일 81.1억으로 60일 평균 3.1억의 약 26배입니다. 최근 20일 중 ±5% 이상 움직인 날이 15일 — 사실상 대부분의 날이 급등락이었습니다. 이런 회전율은 장기 보유자가 아니라 단타 자금이 주도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③ **외국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현재 11.96%로 1개월 전 11.9%, 1년 전 13.16%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낮습니다. 즉 이번 급등은 외국인 매수가 아니라 개인 자금이 주도한 상한가 랠리입니다. 외국인이 적극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 상승이 펀더멘털 재평가가 아니라 수급 이벤트임을 보여줍니다.

④ **시장 대비로는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같은 1개월 코스닥 지수 -8.1% 대비 종목 +65.2%로 73%p 초과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승의 방아쇠는 실적이 아니라 '관리종목 탈출(시총 200억 재돌파)'과 로봇·방산주 동반 테마 수급입니다. 당일은 오히려 -5.97%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론: 지금 가격은 '회사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장폐지를 면하려는 수급'이 만든 가격이며, 11월 5일 2,390원 바닥이 위험의 크기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기업 개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윙스풋은 러닝화·아웃도어 신발(베어파우 등 브랜드)을 만들어 온 신발·패션 기업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516억(2023)에서 420억(2025)으로 줄고 2025년 영업적자로 돌아서자, 2026년 들어 러닝화·헬스케어 '투트랙'과 의료 AI 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W.AI·KAID 등과 MOU·공급계약을 맺으며 신사업 보폭을 넓히는 전환기에 있으며, 동시에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생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제품 구성

사업/제품	설명·비중
러닝화·신발	베어파우 등 기존 신발 브랜드. 본업 매출의 중심이었으나 2024~2025년 매출 감소의 직접 원인. 2026년 러닝화 라인으로 재편 추진. 사업부문별 비중은 DART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 확인 필요.
헬스케어·의료 AI	W.AI와 의료 AI 솔루션 공급계약(2026.08), KAID와 아미노검겔·구강조직 임상 교류 MOU(2026.09). 아직 매출 기여는 미확인이며 신사업 단계.
신사업 기타	2026년 주총에서 AI의료까지 사업목적 추가. IoT·헬스케어 결합을 표방하나 실제 매출 전환은 확인 필요. DART 사업보고서 확인 필요.
매출 비중	사업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DART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 필요. 현재 매출의 중심은 여전히 신발이며 신사업은 매출 기여 미확인.

고객과 판매 구조

기존 고객은 러닝화·아웃도어 신발을 사는 **일반 소비자와 유통 채널**입니다. 분기 매출이 2025.12 186억에서 2026.03 15억, 2026.06 18억, 2026.09 30억으로 급감한 것은 신발 본업 자체가 크게 흔들렸음을 보여줍니다 (계절성 감안해도 이례적). 신사업인 의료 AI·헬스케어의 고객은 W.AI·KAID 같은 파트너사이나 아직 실제 매출 고객으로 전환됐는지는 DART 사업보고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쟁 구도

신발 부문에서는 국내외 러닝화·아웃도어 브랜드와 경쟁하나 규모가 작아 브랜드 파워·유통망 열위에 있습니다. 2026년 분기 매출이 15~30억 수준으로 쪼그라든 점이 경쟁력 약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헬스케어·의료 AI 신사업은 전환 초기 단계라 명확한 경쟁 포지션을 논하기 이르며, MOU·공급계약이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산업 밸류체인 신발 본업에서 헬스케어·의료 AI로 — 전환기 소형주의 구조

윙스풋은 전통 신발 제조·유통에서 출발했으나, 그 사슬이 무너지면서 의료 AI·헬스케어로 축을 옮기는 중입니다. 즉 이 회사는 '소비재(신발) 밸류체인의 말단'과 '헬스케어 신사업의 초입'에 동시에 걸쳐 있는 전환기 기업입니다.

① 원재료·소싱	›	② 제조·브랜드	›	③ 유통·채널	›	④ 최종 수요
신발 소재·OEM 생산처 (해외 외주), 의료 AI 알고리즘·데이터 파트너		윙스풋(신발 브랜드 운영), W.AI·KAID(신사업 파트너)		온·오프라인 신발 유통, 의료·헬스케어 공급 채널		러닝·아웃도어 소비자, 의료기관·구강조직 임상 수요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본업이 무너지는 중이다.** 분기 매출이 186억(25.4Q)에서 15·18·30억(26년)으로 급감했다. 신발 사업이 사실상 축소·전환되고 있으며, 그 공백을 신사업이 아직 메우지 못하고 있다.
2. **신사업은 전부 MOU·공급계약 단계다.** W.AI 의료 AI 공급계약, KAID 구강조직 MOU 모두 발표됐지만 매출 기여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았다. 기대가 주가를 끌 수는 있어도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테마로 끝난다.
3. **관리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밸류체인보다 먼저 주가를 지배한다.** 시가총액 200억 미달로 10월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상한가로 넘겼지만 주가가 식으면 재지정 위험이 돌아온다. 사업보다 생존이 당면 변수다.
4. **전환사채가 주가와 지분의 변수다.** 보도에 따르면 100억원 CB에 곤지암 물류센터 담보를 추가했고, 제2회차 CB 만기전취득도 발생했다. 자금 조달이 신사업 투자인지 생존 자금인지가 핵심 질문이다.
5.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수급·테마가 정한다.** 로봇·방산 테마 급등장에 묶여 동반 상한가가 나왔다. 개별 펀더멘털과 무관한 가격은 테마가 식으면 같은 속도로 되돌아간다.

어떤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영향 요인	방향	민감도	왜 그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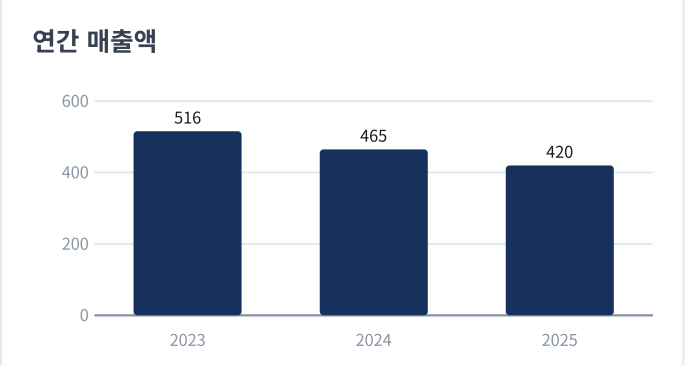
시가총액 200억 요건 (관리종목)	−	매우 높음	200억 미달 시 관리종목·상장폐지 리스크. 주가 자체가 생존 변수가 되는 구조
신사업(의료 AI·헬스케어) 매출화	+	높음(기대)	MOU·공급계약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면 재평가 재료. 현재는 기대만 존재
테마 수급(로봇·방산 동반 급등)	±	매우 높음(주가)	실적과 무관하게 테마장에 묶여 상한가. 테마 식으면 급락 위험
전환사채·담보 설정	−	높음	보도상 100억 CB·물류센터 담보·만기전취득. 지분 희석과 자금난 신호 가능성
신발 본업 매출 회복	+	중간	분기 매출 15~30억으로 급감. 본업 반등 없이는 적자 구조 지속
관리종목 탈출 이후 수급 공백	−	높음	상한가로 시총 넘긴 뒤 단타 자금 이탈 시 급락. 외국인 미참여로 하방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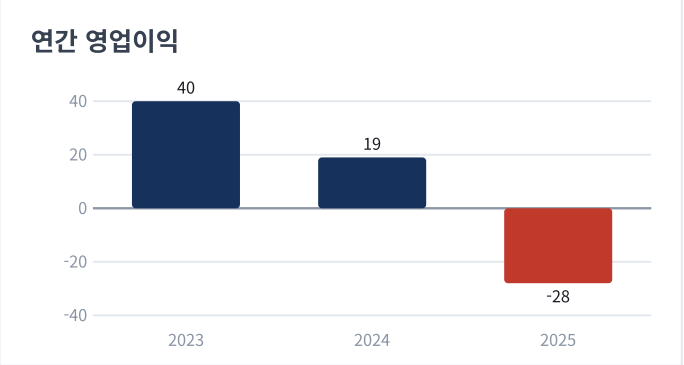
실적 분석 연간·분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516	40	33
2024	465	19	12
2025	420	-2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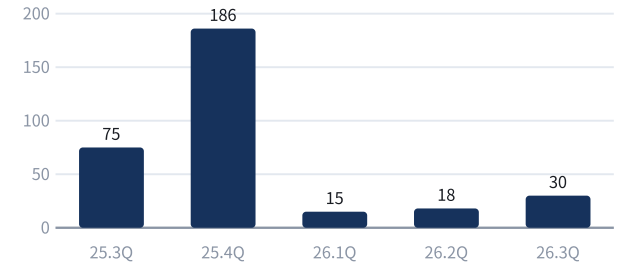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5.3Q	75	-5	-12
25.4Q	186	-4	14
26.1Q	15	-44	-72
26.2Q	18	-19	10
26.3Q	30	-21	-19

단위: 억원 · 출처: DART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반 공개 재무데이터. (E)는 시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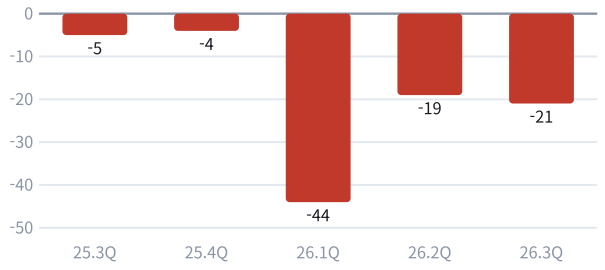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애널리스트 해석 — 숫자 뒤의 이야기

본업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516억(2023) → 465억(2024) → 420억(2025)으로 완만히 줄었지만, 분기로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2025년 4분기 186억이던 매출이 2026년 1분기 15억, 2분기 18억, 3분기 30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계절성을 감안해도 이 정도 급감은 신발 사업 자체가 축소·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자는 고착화됐습니다. 영업이익은 40억(2023) → 19억(2024) → -28억(2025)으로 적자 전환했고, 2026년은 분기마다 -44억·-19억·-21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026년 1분기 -304%, 2분기 -110%, 3분기 -69%로 매출 대비 손실 폭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매출이 너무 작아 고정비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순손익은 분기마다 널뛰기입니다. 2026년 1분기 순손실 -72억(EPS -2,138원), 2분기 순이익 +10억, 3분기 순손실 -19억. 영업은 계속 적자인데 순이익이 들쭉날쭉한 것은 영업 밖(자산 처분·금융손익·평가손익 등)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1분기 -72억의 정체와 2분기 +10억 반등의 원인을 분기보고서 주석으로 확인해야 하며, **일회성인지 반복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아직 버티지만 방향이 나쁩니다. 부채비율은 45.24%(2023) → 55.26%(2024) → 72.75%(2025) → 78.47%(2026.3Q)로 꾸준히 올랐고, 당좌비율은 144.20%(2025) → 71.76%(2026.3Q)로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BPS도 9,411원(2025)에서 7,000원(2026.3Q)으로 자본이 손실로 깎이고 있습니다. 유보율 1,146%는 오래 쌓은 자본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지만, **그 자본이 매 분기 적자로 줄고 있다는 것이 PBR 0.72배 저평가의 전제**입니다.

호재 주가에 힘이 되는 요인

확인된 호재와 기대 요인

3일 연속 상한가로 시가총액 200억 돌파 — 관리종목 탈출 기대

11월 25~27일 3일 연속 상한가(또는 급등)로 시가총액 200억원을 다시 넘겼습니다. 10월 시총 미달로 지정된 관리종목 사유를 일단 넘긴 것으로, 상장폐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주가가 식으면 요건이 다시 미달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스웨이 2026.11.27 / 데일리머니 2026.11.26

의료 AI·헬스케어 신사업 — W.AI·KAID MOU·공급계약

2026년 8월 W.AI와 의료 AI 솔루션 공급계약을, 9월에는 KAID와 아미노검겔·구강조직 임상 교류 MOU를 체결했습니다. 7월 주총에서 AI의료를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등 신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매출 전환이 확인되면 재평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딜사이트 2026.08.05 / 딜사이트 2026.09.02 / 블로터 2026.07.09

러닝화·헬스케어 투트랙 전환 추진

베어파우 이후 러닝화와 헬스케어 두 축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무너진 신발 본업을 러닝화로 재정비하고 헬스케어를 두 번째 축으로 세우려는 시도로, 성공하면 실적 기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2026.11.02

자산 대비 저평가 + 자기주식 소각

주당 순자산(BPS) 7,000원에 주가 5,040원으로 PBR 0.72배입니다. 유보율 1,146%로 쌓인 자본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24일에는 자기주식 477주(256만원 규모) 소각을 결정해 소액이나마 주주환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출처 · DART 분기보고서 2026.11 / 디지털투데이 2026.11.24

악재 반드시 감안할 위험

확인된 악재와 리스크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위기

2026년 10월 2일·18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습니다. 기사에 '상장폐지 위기'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상한가로 시총 200억을 잠시 넘겨도 주가가 식으면 요건이 다시 미달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리스크입니다.**

출처 · DART 2026.10.02 / 비건뉴스 2026.10.18 / 뉴스웨이 2026.11.27

영업적자 고착 — 2026년 분기마다 -44억·-19억·-21억

2025년 연간 영업손실 28억에 이어, 2026년은 1~3분기 모두 영업적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분기 -304%, 2분기 -110%, 3분기 -69%로 매출 대비 손실 폭이 극단적입니다. 매출이 분기당 15~30억으로 급감해 고정비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 DART 분기보고서 2026.11

본업 매출 붕괴 — 186억에서 15~30억으로 급감

분기 매출이 2025년 4분기 186억에서 2026년 1분기 15억, 2분기 18억, 3분기 30억으로 급감했습니다. 신발 본업이 사실상 축소·전환되는 중이며, 신사업이 아직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 없이는 적자 구조가 지속됩니다.

출처 · DART 분기보고서 2026.11

1분기 순손실 72억 + 순손익 널뛰기

2026년 1분기 당기순손실 -72억(EPS -2,138원)이 났고, 2분기 +10억, 3분기 -19억으로 순손익이 크게 출렁입니다. 영업은 계속 적자인데 순이익이 들쭉날쭉한 것은 영업 밖(자산·금융·평가손익)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는 뜻이며, 그 원인과 반복 여부를 분기보고서 주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DART 분기보고서 2026.11

전환사채 발행·만기전취득·물류센터 담보 — 자금 압박 신호

2026년 10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기재정정)과 제2회차 CB 만기전취득이 있었고, 보도에 따르면 100억원 CB에 곤지암 물류센터 담보를 추가했습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빚이라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고, 담보 추가와 만기전취득은 본업 현금창출이 부족해 외부 자금에 기대는 구조를 시사합니다.

출처 · DART 2026.10.30 / DART 2026.10.22 / 비건뉴스 2026.10.25

당좌비율 100% 미만 — 단기 유동성 약화

당좌비율이 2025년 144.20%에서 2026년 3분기 71.76%로 하락하며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당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단기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부채비율도 72.75%(2025)에서 78.47%로 상승 추세이며, BPS는 9,411원에서 7,000원으로 자본이 깎이고 있습니다.

출처 · DART 분기보고서 2026.11

테마·투기 수급 — 거래량 8.3배, ±5% 변동일 15일

당일 거래량이 20일 평균의 8.3배, 거래대금은 60일 평균 3.1억의 약 26배입니다. 최근 20일 중 ±5% 이상 움직인 날이 15일로 사실상 매일 급등락했습니다. 로봇·방산 테마 급등장에 동반 상한가가 난 것으로, 개별 실적과 무관한 수급입니다. 외국인 소진율도 11.96%로 1년 전 13.16%와 비슷하거나 낮아 외국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 / 뉴스투데이 2026.11.27

중기 추세 하락 지속 — 3개월 -6.1%·1년 -41.6%

3개월 주가는 -6.1%, 1년 주가는 -41.6%로 중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입니다. 11월의 급반등 이전인 11월 5일에는 52주 최저 2,390원을 찍었습니다. 테마 수급으로 단기 급등했으나 중장기 방향은 아직 돌아서지 않은 상태이며, 테마가 식으면 저점을 재시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

공시 타임라인 최근 9개월 DART

접수일	보고서명	제출인
2026.11.13	분기보고서 (2026.09)	윙스풋
2026.10.30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제2회차)	윙스풋
2026.10.22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윙스풋
2026.10.02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본부
2026.08.27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코스닥시장본부

2026.08.14	반기보고서 (2026.06)	윙스풋
2026.08.04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코스닥시장본부
2026.05.14	분기보고서 (2026.03)	윙스풋
2026.03.18	사업보고서 (2025.12)	윙스풋
2026.03.18	감사보고서제출	윙스풋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는 회색 참고용.

공시 흐름 해석

공시를 시간순으로 읽으면 **'거래정지(주식병합) → 관리종목 지정 → 전환사채로 자금 메우기'**로 요약됩니다. 8월 주식병합(액면병합)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재개됐고, 10월 2일·18일에는 시가총액 200억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습니다. 그 직후인 10월 22일 전환사채 발행을 (재)결정하고, 10월 30일에는 제2회차 CB를 만기 전에 취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00억원 CB에 곤지암 물류센터를 담보로 추가한 점까지 보면, **2026년 하반기는 '본업으로 번 돈'이 아니라 '빚과 담보로 버티는 시기'**였습니다. 액면병합은 주가 숫자를 끌어올려 관리종목 요건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읽히며, 11월의 연속 상한가와 자기주식 소각(256만원)도 시총 요건·주가 방어라는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목표주가 없음 · 방향과 조건만

강세 시나리오

신사업(의료 AI·헬스케어)의 MOU·공급계약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고, 신발 본업도 러닝화로 재편되며 매출이 회복. 전환사채가 신사업 투자 자금으로 쓰여 적자가 축소. 시가총액이 200억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관리종목에서 벗어난다. **조건: 매출 회복과 관리종목 해제가 모두 공시로 확인돼야 함.**

기본 시나리오

신사업은 MOU·기대 단계에 머물고 본업 매출도 분기 15~30억 수준에 정체. 주가는 관리종목 요건(시총 200억) 경계에서 테마 수급에 따라 급등락 반복. 전환사채 전환·리픽싱이 상단을 누른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

약세 시나리오

신사업 매출 전환이 지연되고 영업적자가 계속되며 자본이 더 깎임. 테마 자금 이탈로 시가총액이 다시 200억 아래로 내려가 관리종목 사유 재발, 상장폐지 심사 리스크 부각. 11월 5일 저점(2,390원) 재시험 가능성. **실적 흐름상 충분히 현실적인 경로.**

앞으로 확인할 것

1. 시가총액 200억원 요건의 안정적 유지 여부 — 관리종목 해제·재지정 공시(한국거래소·DART 수시 확인)
2. 분기보고서 주석에서 2026년 1분기 순손실 72억과 2분기 순이익 10억의 원인 확인(금융·평가손익·자산 처분)
3. 10월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리픽싱 조건·전환청구 시작일(DART 주요사항보고서)
4. 신발 본업 분기 매출 회복 여부 — 다음 분기보고서에서 15~30억대 탈출 확인
5. 의료 AI·헬스케어 MOU·공급계약이 실제 매출로 잡히는지(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유무)
6. 당좌비율 100% 회복과 부채비율 추이 — 100억 CB·물류센터 담보의 자금 사용처

오픈팩트의 결론

윙스풋은 **실적이 무너진 신발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위기 속에서 의료 AI·헬스케어로 전환을 시도하는 전환기 소형주**입니다. 11월 3일 연속 상한가로 시가총액 200억을 넘기며 생존 고비를 일단 넘겼고 PBR 0.72배라는 저평가 근거도 있지만, **그 반등은 실적이 아니라 관리종목 탈출 기대와 테마 수급이 만든 것**입니다. 분기 영업적자가 고착됐고 본업 매출이 15~30억으로 쪼그라든 점, 외국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한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가격은 회사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수급**이 만든 가격에 가깝습니다. 11월 5일 2,390원 바닥이 그 위험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주가×주식수, 시장이 매긴 회사 몸값 · **PER**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 · **PBR**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1배 미만이면 장부보다 싸게 거래) · **부채비율** 빚÷자기자본(200% 초과 주의, 400% 이상 위험) · **당좌비율**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1년 내 갚을 빚(100% 미만이면 빠듯) · **유상증자** 새 주식을 찍어 돈을 받는 것(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무상감자** 주식 수를 줄여 손실을 터는 절차(손실을 주주가 부담) ·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전환되면 지분 희석) · **수주잔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물량 ·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 중 실제 보유 비율 · **거래대금** 주가×거래량, 그날 실제로 오간 돈의 크기 · **밸류체인** 원료→부품→완제품→고객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

본 자료는 공개 정보(DART 전자공시, 공개 재무데이터, 언론보도)를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재무 수치는 DART 공시 기반 공개 데이터를 옮긴 것으로 원문 재무제표와 표기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주·계약 금액 일부는 언론 보도에 근거해 공시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세·지표는 표기된 기준일 종가 기준 이며 이후 변동됩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